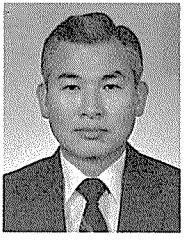
컴퓨터 이용자 교육에 대한 제언

컴퓨터 이용자 교육이란,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산교육을 말한다. 전산화,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이나 기술축적도 필요하지만 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로 하여금 컴퓨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컴퓨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인식부족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퍼스널 컴퓨터의 많은 보급과 더불어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교육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전산 기초교육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다. 전문 요원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과 이용자를 위한 기초교육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실무자인가 관리자나 경영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며, 실무자인 경우에도 담당분야나 직무에 따라 과정을 세분할 수 있으면 교육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육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육대상자에 적합한 교과내용을 편성하므로써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강사는 명성보다 교육성과 위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강사에게 교육목적과 교과내용, 참가자의 수준 등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므로써 제한된 시간내에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李榮吉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있게 한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컴퓨터를 어렵고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어려운 말로 교육을 실시해 온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컴퓨터 이용자 교육은 실시후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쌓인 문제점이 노출될 때 이를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용자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단하게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